

# '위대한 정치' — '사람다운 정치'

교수논단

## 21세기 올바른 정치를 위한 제언



라 종 일

(정경대학교수·정치학)

### I. 20세기 정치평가

토마스 만(Thomas Man)은 현대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점점 더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된다는 말을 한 일이 있다. 이 말은 이번 세기의 경험을 통하여 극적으로 실현된 셈이다. 20세기는 두번에 걸친 세계 대전과 두건의 대규모 혁명을 포함하여, 수 많은 전쟁과 내란 그리고 기타의 큰 사건들이 있었던 '위대한' 정치의 세기였다. 그러나 이제 이 세기를 마감할 시기를 불과 7-8년 앞두고 뒤돌아 생각해 보면 가장 뚜렷한 사실이 바로 20세기가 어떤 적극적인 성취보다 수 많은 사람들에게 재난과 고통을 안겨준 비참한 실패의 기록들을 남긴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 것은 어떤 정치적인 형성분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압도적인 사실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어야 하는 공적적인 진실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 이른바 '대실패'란 단지 이번 세기를 10여년 앞두고 일어난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야당에 아니라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인도주의적이라고 자랑해오던 그리고 이런 주장을 근거로 다른 나라들을 비방하여 오던 체제들이 하루 아침에 넘어지는 것은 대단한 광경이었다. 혁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이 필요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이다. 살아남은 몇몇 사회주의 체제들은, 예전의 불타는 것같은 사명감이나 사람들의 연대감은 어디로 가고, 기껏해야 가능한한 나라를 길러 잡고 "자기 식"으로 살겠다는 고집을 부리면서, 단지 경제와 기술 협조를 위해 체면불구하고 손을 내밀 뿐이다. 그러나 이 비참한 실패는 어느 한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한 때 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나 소외 없이 참여하여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찬란한 꿈이었다. 민주주의를 이룬 후에는 대이성 사회의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특권 계층도 그리고 이들의 작은 이해에 봉사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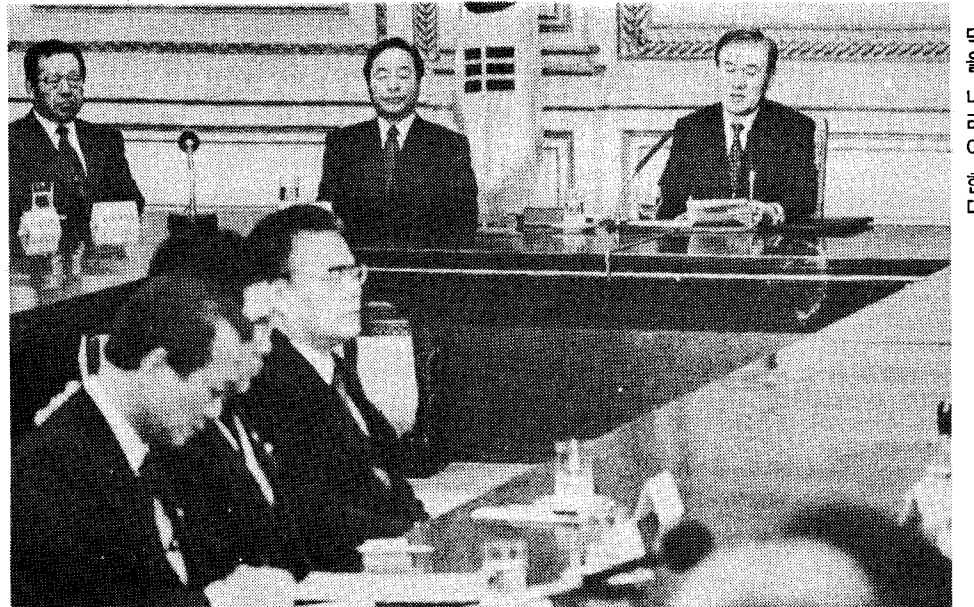
쟁도 없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적국적이거나 공적적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있기보다는 그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있는, '가장 덜 해로운' 체제에 불과하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란 이미 사람들의 냉소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답다기 보다 괴물에 가까운 '직업 정치인'이나 관리들에 의한 '그리고' '거대한 법인체'를 위한 정치 뿐이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손 꼽는다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참담한 사태의 전개를 보라. 이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고 자신 주변 움직임에 관

심을 바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양자대전시 모두 젊은이들은 이렇게 그럴싸한 큰 구호를 믿고 기꺼이 목숨을 내맡겼던 것이다. 위대한 혁명이나 위대한 전쟁이란 모두 그저 인간이란, 콘라드의 표현을 빌려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되풀이 하여서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 민족국가도 애초에 사람들의 진정한 공동체로서, 정신적인 고향(Heimat)이며 동시에 온갖 공적인 활동의 무대이며 기준 그리고 중심이 되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민족 국가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상실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대국가의 가장 큰 성취로

제3세계도 거의 빈곤에서의 탈출에도 실패했고, 내적인 압제와 정치적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 모든 인민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협조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룩된 국제연합은 패권 각국과 패권유지의 명분을 마련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한 때에는 파시즘도 민족주의적인 정열이나 영웅적인 행동의 전망 때문에 젊은이들로부터 열렬적인 지지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이 이 세기를 마감하면서 기억해 두어야 하는 일이다.

### II. 사람다운 정치를 위하여

정치에 대한 환멸은 현실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나 기피, 정치일반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



◇ 1992년 5월 11일 (월요일) ◇

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인 능력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의적인 전향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능력과 함께 설득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인 것이다. 어쩌면 다음 세기는 이런 뜻에서 이번 세기보다 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미래의 정치에 관해 생각할 때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아울러 군대를 통해 그리고 특히 이번 세기에 있어서 우리는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이 엄연하게 구분되어 버리는 경향을 노정하였다. 아무리 사악한 행동도 공적인 이유와 명분으로 저질러졌으면 어쩔 수 없거나 혹은 이해할 수 있거나 심지어는 출중한 것이요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다행히 아직 미흡하고 약

율리의 기준을 담은 책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미 서구라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2차대전 직후에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학자들은 양국민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을 마련하였다. 그 후 이것은 서구라와 전적으로 확산되어서 처음으로 각국의 역사가가 함께 참여한 '구리와 역사'가 쓰여진 것이다. '세계시민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오래된 정치이론적인 난제, 즉 좋은 시민과 좋은 사람사이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과서를 마련하는 과정 자체의 좋은 영향이나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는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

### III. 중용과 균형 감각의 추구

국가의 주권 입문인 안전보장에 관하여서도 그것이 단지 이른바 고등정치의 영역인 군사·외교의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즉 취미의 기회,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모든 환경 파괴의 악영향에서의 안전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세계적인 전망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 정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자유의 영역이란 실은 매우 비좁은 것이다.

또 대체로 우리가 매우 국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상충되는 여러 가치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적어도 몇천 년의 경험과 많은 축적된 지식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단지 우리가 정치에서 일거에 많은 결과를 기대하는 유아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정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겸손하게 깨닫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상으로 추구해온 균형과 중용의 감각을 추구한다면 다음 세기는 더 이상 수많은 동상이 세워졌다가 다시 부서지는 참담한 광경을 보지 않고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20세기 정치, 좌절과 환멸의 정치적 폐허 남겨 특수계층만이 아닌 국민과 함께 읽는 '교과서' 마련돼야

여서 아무런 힘도 없는 절망적인 노예들의 폭동을 보는 것 같다. 이번 세기의 좌절과 환멸의 기억들은 끝이 없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차대전 때 구라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구호는 "나라를 위해서 네

알려진 안전보장도, 오히려 대내적인 억압과 대외적인 전쟁때문에 잃어버린 개인의 자유의 박탈과 신변위협이 더 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것이다. 제1세계와 제2세계의 대결에 대하여서 참신한 대안을 갖고 시작했다는

소속인 태도 등이며, 이보다 더 심층적인 경향은 극심한 개인주의와 물질적인 추구이다. 사람들의 공동체도 그저 이 개인적 이기심의 집합이며, 개인적인 물질적 추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개인주의적 추구의 연장선에 불과하게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정치적 이상의 평가나 사람들 사이의 연대 그리고 공동의 노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20세기가 남긴 정치적인 폐허 위에 이른바 '사생활의 폭동'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좌절과 환멸속에서도 정치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더 이상 '위대한' 정치가 아닌 '사람다운' 정치를 이룩하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함께 모여 살면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함으로써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의 공동생활 일선에 관한 전반적인 전망을 하고 이것을 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모두 정치적인 식견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팔목할만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룩하여서, 예전에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기술적인 수단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모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의 생활환경까지 완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제 문제들의 해결에는 우리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공동노력이 목표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살아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되도록 우리의 공동생활의 방식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의무론적인 논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번 세기에 있어 실패의 기록들을 다시 들여다 보고 그 부정적인 교훈들과 함께 희망적인 유산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회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생각해 왔다. '이제는 관심을 구체적인 사람으로 돌려야 할 때이다. 사람은 대부분 높은 정도로 추상화되어서 어떤 이론적인 틀에 맞혀 억눌려 위치 밖에는 주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살아서 숨쉬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해야한다. 이미 사회과학자들은 일부 이러한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기에 도의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에 전념하여 왔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온갖 힘을 우리의 외부에서 찾아왔다. 이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적'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동양의 전통적인 윤리관은 공적인 생활에 앞서 엄한 자기 수양과 사생활의 정립을 요구하였

용의 여지도 많지만 공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사적인 윤리적 책임을 묻는 관행이 시작되고 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개인적인 반응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에 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역시 근대 이후의 지속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치를 직업적인 일로, 혹은 그렇게만 생각하여 왔다. 선출된 정치인 이외에도 정치는 주로 우리들과는 별 상관없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권력이 커지고 있는 직업적 관리들에 의하여 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원래 의사나 기술자같은 전문직업분야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분야이다. 이런 추세를, 현실적인 여건 탓만을 하면서 그저 체념하고 묵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비직업적'으로 정치의 시대를 열어 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통하여서만 공적으로 소외의 정치를 참여의 정치로, '위대한 정치'를 '사람다운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권력을 혹은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다음세기의 산적한 난제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중의 하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세계시민 교과서'를 마련하는 일이다. 어떤 시기에 어떤 나라에서 권력을 장악한 몇몇 사람들이나 패권을 장악한 특수 계층만의 교과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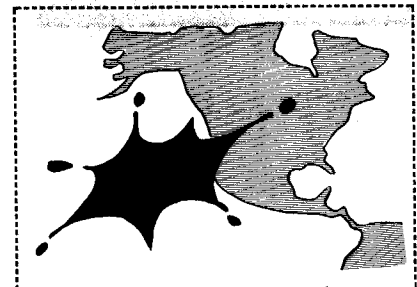


### '자유와 평등' 그 양의 탈이 벗겨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지극히 평범하고 익숙한 명제이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존재하는 세계의 일원으로 속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존재하는 세계를 변화·발전시키는 의무마저 부과되어 태어나는 지도 모른다. 아니 그것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은 역자라는 '수레바퀴'에서 한발 짝 떨어지거나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주어진 여건에서 조금 더 잘살아 보려는 생존에 충실할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다. 물론 그 명제를 실현하는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 그 '인간답게'라는 것에 부합하는 것이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에 머무를 수도 있고 지적탐구심, 아니면 자기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인간답게 사는 방법으로 설정하는 수도 있다. 어떠한 방법이든 전제는 있다. 바로 모든 인간이 '평등'한 관계속에서, 사회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사회속에 사는 그 하나하나의 구성원을 사랑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볼때 지금의 세계적 상황은 혼돈

되는 모순의 양상을 띄고 있는 듯하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존재,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명명된 체제속에는 양적 부에 걸맞은 풍요로움이 있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그 나라가 부러웠다.

그러나,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위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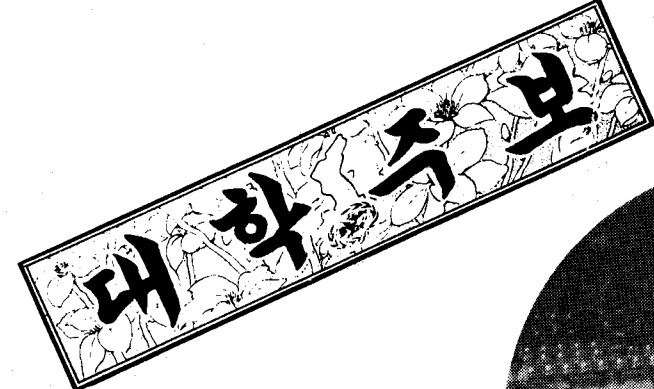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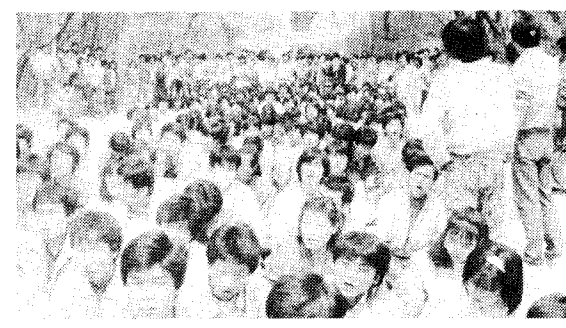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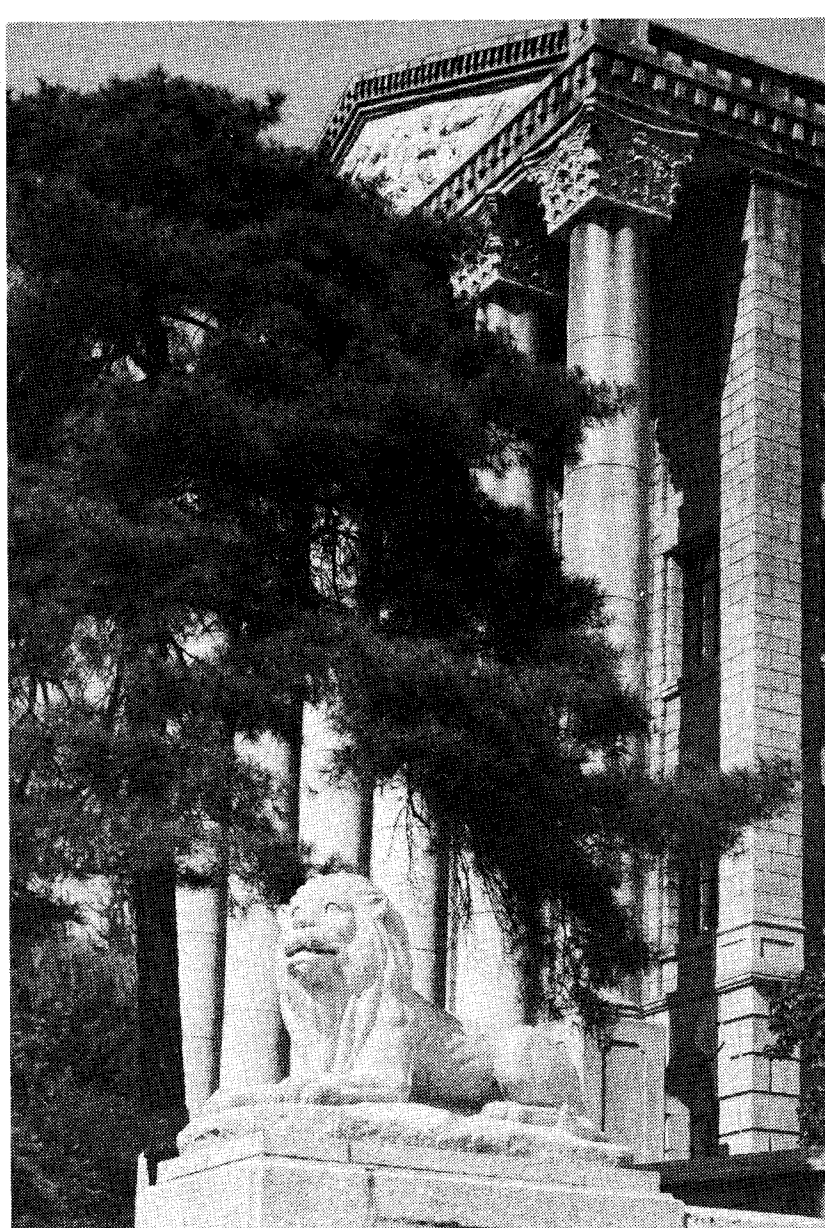


나라에 한차례의 태풍이 일었다. 그 태풍은 LA전역을 휩쓸었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외된 계층의 분노와 좌절은 극도에 다다랐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잃고 백인숙의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은 포악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인간평등을 내세우며 인종차별을 폐지하려 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실상 그들이

지향하고 싶었던 절대적 가치였을뿐 차별받는 흑인을 위로해 줄 실질적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평등이라는 절대적 가치는 더불어 살아야 할 인간의 정을 매마르게 하는 결과일 뿐이었다. 결국 아메리카드림을 품었던 한 인들, 그 유색인종들조차 그들의 동지가 갇혀버리는 '속죄양'으로 희생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인간답게라는 명제를 지키고자 사회를 변혁시켰던 나라가 있었다. 물론 경제적 빈곤과 관료화로 무너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발라붙어온 자유의 나라와, 경제와 관련된 두 손든 나라를 보며 그 절대평등에 누가 더 충실하려 했는지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애초에 소련의 그 체제는 인간존엄이라는 명제에 도달하기 위해 혁명속에서 피를 보아야 했다. 그러나 LA는 허울속의 한계표로 피를 보여주었다.

그러기에 LA의 율령은 레닌의 동상이 쓰러짐보다 더 참혹하고 비참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쓴채로 늑대의 그 것을 담은 사회의 모순 발현이었으므로.



이제 직장이나 집에서도 대학주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희의 역사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진취적인 패기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그 곳에는 언제나 '대학주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과속의 여유를 '대학주보'와

함께 하십시오. '대학주보'는 경희인의 思考와 理想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합 학술· 시사 주간지입니다.

### 【대학주보 정기구독신청요령】

졸업후에도 '대학주보'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본사에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대 학 주 보 사

◇ 신 청 주 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 신 청 전 화: (02) 961-0094, (02) 963-5849  
◇ F A X: (02) 963-5849  
◇ 정 기 구 독 료: 1만원(1년 25회 276면 각회 1부기준)  
◇ 기 타: 정기구독 신청서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 주시고 가능한 본사에 마련되어 있는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접수시켜 주십시오.